

딕펑스·YB와 한여름밤 음악축제 즐긴다

13·14일 '광주사운드페스티벌' '더로즈' '데이브레이크' 등 출연

5·18광장 무대...지역 신진밴드도 공연

유명 초청 가수들과 열정을 나누는 음악 축제가 올해도 개최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이 주관하는 음악 축제 '2019 광주사운드페스티벌'이 오는 13일 오후 6시, 14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된다.

사직공원 일대에서 펼쳐졌던 지난 행사와 달리 이번엔 13일 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컬, 14일 5·18 민주광장에서 무료로 관객을 기다린다.

이번 공연 라인업은 학생, 젊은이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초청 가수들을 중심으로 채웠다. 13일에는 '슈퍼스타K 4' 준우승으로 이름을 알린 펑크록 밴드 '딕펑스'를 비롯해 '슈퍼밴드' 출연과 함께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1000만부를 돌파한 보이밴드 '더로즈', '훈남 듀오 밴드'로 알려진 브리티시 팝 듀오 '1415'가 출연한다.

14일은 대한민국 국민밴드 'YB'와 함께 '좋다', '들었다놔다' 등 인기곡으로 유명한 '데이브레이크', 탄탄한 연주력으로 세련되고 감성적인 팝-모던 록을 들려주는 '소란'이 무대에 오른다. 프로듀스 101에서 12위를 차지한 후 싱어송라이터 아이돌을 합친 '싱어송라이더'로 활동 중인 정혜운, 일상적이고 공감 가는 가사로 주목받은 스텔라장 등 싱어송라이터들도 출연한다. 신스팝 밴드 '아도이', 기타 리스트 겸 가수 '적재', 감성 팝 밴드 '휴이'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번 축제는 지난 5-6월 진행된 '2019 광주음악



'2019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에 출연하는 'YB'.



'딕펑스'

장작소 뮤지션 인큐베이팅' 경연에서 입상한 지역 신진 밴드들이 꾸미는 무대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13일엔 엠비엔트·신스팝을 연주하는 3인조 밴드 'COSMOS', 5인조 혼성 록 밴드 '페이크 유니버스', 어쿠스틱 듀오 밴드 '818'이 출연한다. 14일은 경연 대상 수상팀으로 거친 노이즈, 몽환적인 멜로디를 선보이는 슈게이징 밴드 '셔츠 보이 프랭크'가 무대를 갖는다.

한편 14일엔 전일빌딩 건물에 영상을 투영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마련된다.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지난 2014년 '사직국제포크음악제'로 시작해 2016년부터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고, 장르적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대중음악의 트렌드를 선보이고 있다.

무료 관람. 자세한 일정은 공식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peakmusic),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j_peakmusic)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나눔음악회 'Classic in the Folk'

APS 6일 금호아트홀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APS)'이 오는 6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제4회 나눔음악회 'Classic in the Folk-사랑하는 이에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중 '벚노래'와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로 시작한다. 양희은의 '세노야'를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이어 강승원의 '사월애', 김광석의 '거리에서',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조동진의 '제비꽃', 이두현의 '새벽기차' 등 곡으로 무대를 채운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타카나' 중 '진주곡', 차이코프스키의 '현악4중주 제1번' 중 '안단테 칸타빌레' 등 클래식 곡도 함께한다. 이두현의 '수요일엔 빨간장미'

과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을 함께 연주하는 무대로 마무리를 장식한다.

비올리스트 겸 지휘자 진윤일이 출연하고 장석범(하모니카), 김지은(편곡·피아노)이 협연 무대를 펼친다.

APS는 음악의 열정을 가진 전문 연주자들이 모인 단체(Academy)로 음악의 열정(Passion)을 청중과 함께 나눈다(Sharing)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휘자 진윤일이 2012년 Orchestra Passion & Sharing(OPS)이란 이름으로 창단한 단체다. 201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후원단체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한국 메세나 대상 Arts & Business 상을 수상했다. 전세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10-6331-6834.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역 종합문예지 '문학춘추' 여름호 발간

지역에서 발행되는 종합문예지 '문학춘추' 여름호(통권 107)가 발간됐다.

이번 호 특집으로 한국 근대극을 선도했던 김우진의 문학을 다뤘다. 특히 김우진이 남긴 논문 '이광수의 작품을 대장하라'와 희곡 '사의 찬미' 등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 개화기 한국 연극의 선구자인 김우진은 '사의 찬미'를 부른 가수 윤심덕과의 로맨스 주인공으로, 젊은 나이에 동반자살했다. 이번 호에 실린 논문에서 김우진은 당대 한국문단의 거장이자 '무장', '휴'의 작가인 이광수 문학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연재를 '명작 후의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장인우 작가가 '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현장과 그 현장에 숨어있는 뒷이야기를 담았다.

다른 특집 '이 계절의 초대시'에서는 지역시단의 큰 어른인 손광은 시인(전 남대 명예교수)의 남북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한 시를 소개했다.

이 밖에 노창수 평론가의 서평과 전세준·이정순 작가의 동화, 문계정 수필가의 수필 등 지역문인들의 다양한 작품이 수록돼 있다.

또한 제105회 '문학춘추' 신인작품상 수상자 김금덕, 안자형, 이상욱, 한종임 시인의 시와 김애자 수필가의 수필 등도 엿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적 피아니스트 선을 광주서 울려 퍼진다

이진상 연주회 8일 금호아트홀

케빈 케너 공연 12일 금호아트홀

세계적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노 선율이 광주에서 잇따라 울려 퍼진다.

피아니스트 이진상 공연이 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멘델스존의 '무언가'를 선보이며 막을 올리고, 이어 브람스의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을 공연한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를 위한 18개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의 18개 곡도 무대에 올린다.

이진상은 서울예술고 수석 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필름 국립음악대학과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중앙음악콩쿠르 1위를 수상하고 필름-홍콩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과 동시에 대회 최초로 슈만 상, 모차

르트 상, 청중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내에선 운파 임원식 음악상을 수상했다. 현재 '베토벤 트리오 본'의 피아니스트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3만원, 학생 1만5000원. 문의 062-360-8437.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는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은 하이든의 '소나타 제58번'으로 문을 연다.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과 쇼팽의 '5개의 마주르카'와 함께 쇼팽의 '스케르초 제4번'을 무대에 올린다. 이어 파데레프스키의 '6개의 유모레스크'를 공연한다.

케빈 케너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폴로네이즈상,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3위, 국제 테렌스 저드 상을 1990년 한 해에 수상했다. 볼티모어의 피바디 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11년간 영국 왕립 음악원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는 마이애



이진상



케빈 케너

미 대학 프르트 음악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쇼팽 콩쿠르와 부조니 콩쿠르 등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일반 5만원, 학생 4만원. 문의 062-360-843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일부터 광주시민인문학 69기 정기강좌

광주시민인문학 69기 정기강좌가 오는 8일부터 4주간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카페 노블에서 열린다.

목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후 7시30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시민대학, 글쓰기, 철학, 영화,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월요일 '시민대학 은고지신'에는 최창근 박사가 '박화성의 '국가'와 최명희의 '공동체'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 글쓰기 교실에는 명혜영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실기 위주 강좌를 진행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신우진 씨와 명혜영 교수가 각각 '목욕, 심인심책',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을 진행한다.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영화 인문학 시간으로 '영화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을 주제로 영화 감상과 이야기기가 펼쳐진다. 강좌는 가수별, 강좌별로 등록하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역
연세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	---	-------------------------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